



TOKYO 2020

스카이데일리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도쿄 TODAY



K팝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문화외교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그래미상 시상식서 단독 무대를 장식한 BTS

던던댄스·버터·리브샷 K팝, 올림픽도 달군다

“말리지 마. 지금 내 기분은 필 소 하이 (feel so high) 멀리 멀리 멀리 다 눈부서”

지난달 31일 '2020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 도중 그룹 '오마이걸'의 '던 던 댄스'가 울려 퍼졌다. 흥겨운 리듬에, 긴장감 넘치는 접전이 환기가 됐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참여한 경기에만 K팝이 선곡되는 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자 배구 경기에선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캐나다와 이란의 남자 배구 경기에선 '엑소'의 '돈트 파이더 더 필링'과 '리브샷'이 배경음악으로 선곡됐다.

한류의 선봉인 K팝이 '도쿄올림픽'에서도 문화외교에 앞장서고 있다.

오마이걸·방탄소년단·엑소 외에도 세븐틴, 블랙핑크, 샤이니, 위너, 있지, 에이티즈, NCT 127, 스트레이키즈, 스테이시 등 다양한 K팝 그룹의 노래가 도쿄올림픽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채웠다. 어림잡아도 15팀가량의 곡이 울려 퍼졌다. 도쿄올림픽에서 경기장 내 배경음악 선곡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나 각 종목의 연맹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팝의 위상이 날마다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적 대형 이벤트에 구애를 받았다. 인지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편리할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부터 분위기가 역전됐다. 폐막식 때 엑소와 2NE1 출신 씨엘이 등장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후 K팝이 미국 빌보드를 비롯 세계를 휩쓸었고, 각종 글로벌 이벤트에서 K팝이 울려 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본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 현황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대한민국 종합순위 8위					
순위	나라	금	은	메달 합계	
1	중국	24	15	14	53
2	미국	20	24	16	60
3	일본	17	5	9	31
4	호주	14	3	14	31
5	ROC*	12	19	13	44
6	영국	10	10	12	32
7	프랑스	6	10	6	22
8	대한민국	5	4	9	18
9	이탈리아	4	8	15	27
10	네덜란드	4	7	6	17
11	독일	4	4	11	19

* ROC=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 선수들

기사: 올림픽TF팀·뉴스/사진: 뉴스스



2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경기, 5회말 무사 2,3루에서 강백호가 2타점 안타를 날린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 '야구의 정석' 9회말 역전에 이어 콜드게임 勝 쫓았다

전날 도미니카공에 4-3 승리 어제 이스라엘 7회 11-1 물리쳐 美-日 승자와 내일 결승行 한판

에 오른 선발 투수 김민우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여 팀 승리에 발판을 냈다.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구원 등판해 1⅓이닝을 피팩트로 막아냈던 김민우는 4⅓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던 타선도 시원스럽게 터졌다. 한국은 이날 홈런 2방을 포함해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이스라엘 마운드를 두들겼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녹아웃 스테이지 1라운드부터 2번 타자로 나선 강백호의 방망이가 뜨거웠다. 강백호는 4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불꽃타를 휘둘렀다.

오지환과 김현수가 홈런포를 가동하며 해설사 역할을 했다.

한국은 1회말 박해민, 강백호의 연속 안타로 잡은 무사 1, 3루의 찬스에서 이정후가 희생플라이를 쳐 선취점을 뽑았



2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경기에서 11대 1로 이스라엘에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다. 추가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양의지가 중견수 플라이로 몰려나 만들어진 2사 1루에서 김현수의 중월 2루타 때 1루 주자 강백호가 홈까지 내달렸지만 상대의 중계 플레이에 아웃됐다.

한국은 2회말 선두타자 오재일이 중전 안타를 뽑아낸 뒤 오지환이 상대 선발 조이와그먼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뽑아내 3-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3-0으로 앞서가던 5회초 1사 1루 상황

플라이로 잡아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긴 뒤 한국에게 기회가 왔다. 선두타자 오재일이 안타를 친 후 오지환이 몸에 맞는 공으로 걸어나갔고, 허경민이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로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를 만들어내 무사 만루의 찬스를 일켰다.

한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거 7점을 올리며 빅이닝을 만들었다.

후속타자 황재균이 1루 땅볼을 쳤지만, 상대 1루수의 홈 송구를 포수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3루 주자 김해성이 안착해 한국에 추가점을 안겼다.

무사 만루의 찬스를 이어간 한국은 박해민이 좌측선상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려 6-1로 점수차를 벌렸다.

이어진 무사 2, 3루에서 강백호가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 내 2점을 보탠 한국은 이후 2사 1루에서 김현수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려내 10-1로 달아났다.

한국은 7회말 2사 후 김현수의 2루타와 김해성의 적시타가 연달아 터져 1점을 추가, 콜드게임 승리를 완성했다.

'탁구신동' 신유빈 펄펄... 女탁구 단체전 8강 진출

폴란드에 3-0승... 세계 3위 독일과 준결승 놓고 격돌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의 신유빈(왼쪽)·최효주 조가 2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 복식 경기에서 폴란드에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를 거둬며 단체전 8강에 올랐다.

한국 여자 탁구가 폴란드에 진땀을 거두며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8강에 진출했다.

전지희(포스코에너지)·최효주(삼성생명)·신유빈(대한항공)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탁구대표팀(세계랭킹 4위)은 2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에서 폴란드(나탈리아 파르티카·나탈리아 바요르-리첸)를 3-0(3-2, 3-0, 3-2)으로 이겼다.

올림픽 탁구 단체전은 복식 1경기과 단식 2~5경기가 진행된다. 먼저 세 경기를 따내는 팀이 승리한다. 한국은 세계랭킹 14위인 폴란드를 맞아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복식과 단식에 나선 신유빈의 활약이 빛났다. 한국은 1경기 복식에서 신유빈과 최효주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섰다. 2세트 연속 따내면서 승기를 잡은 한국은 폴란드의 거센 반격에 3, 4세트를 내

주며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5세트를 접전 끝에 13-11로 가져오면서 1경기를 어렵게 가져갔다.

2경기에서는 '에이스' 전지희가 출격했다. 전지희는 폴란드의 중국 출신 귀화 선수 리첸을 시종일관 압도했다. 공격타구로 리첸을 몰아붙여 1세트 11-4, 2세트 11-8, 3세트 11-3으로 승리하며 완공했다.

한국 탁구의 기대주 신유빈이 3경기에서 나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유빈은 1세트를 11-4, 2세트를 11-7로 잡으며 폴란드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폴란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폴란드는 11-9, 11-8로 3·4세트를 가져오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신유빈은 속공과 백핸드 공격 등이 터지면서 5세트를 11-5로 따냈다. 세트스코어 3-2로 3번째 게임도 잡아내 한국은 게임스코어 3-0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16강전에서 세계 3위 독일과 3일 오전 10시 준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배드민턴 김소영-공희용, 女복식 銅

韓선수끼리 3, 4위 맞대결

한국 선수들 간의 맞대결로 펼쳐진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이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을 제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영-공희용은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소희·신승찬을 2-0(21-10, 21-17)으로 꺾었다.

이로써 김소영-공희용은 동메달을 차지했고, 이소희·신승찬은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간 배드민턴 메달 결정전이 펼쳐진 것은 2004 아테네 대회 남자복식 하태권-김동문(금메달), 이동수-유용성(은메달) 이후 17년 만이다. 동메달 결정전은 처음이었다.

세계랭킹은 이소희·신승찬이 4위, 김소영-공희용이 5위다.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대한민국 김소영, 공희용(왼쪽)과 대한민국 이소희, 신승찬(남색)의 동메달 결정전 경기, 대한민국 공희용, 김소영이 셔틀콕을 넘기고 있다.

이소희·신승찬은 앞서 4강에서 그레시아 폴리-아프리아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 져고, 김소영-공희용은 천칭천-자이판(중국)에 밀려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다.